52/200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독짓는 늙은이.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희곡/시나리오 독 짓는 늙은이

#124

인물	성격	내면심리	
송영감	환자,노인	독 걱정	
옥수	남편 보살핌	남편 걱정	

중요 소재 : 독 - 백자기 - 중옹,통옹,반옹으로 이어지며
#124와 #125를 연결, 작품 전반 핵심 소재로 작용

송영감과 옥수, 왱손이와의 갈등은 없음
옥수는 송영감의 건강을 걱정하고
(독이 아닌 건강을 먼저 챙김)

왱손이는 송영감의 멘탈을 걱정함
('자네 환장했구먼...' 송영감에 공감)

#124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 갈등
송영감	환자,노인,	절망. 비통. 오열	독 짓기 실패 ⇨ 멘탈 터짐 ⇨ 독 파괴
왱손이	송영감 절친	송영감 만류 걱정, 공감	독 짓기 실패 ⇨ 송영감 멘탈 터짐 ⇨독 파괴 ⇨ 만류, 공감
석현	송영감 제자 옥수 전 남친	독 걱정 송영감과 갈등 분노	독 짓기 실패 ⇨ 송영감 멘탈 터짐 ⇨독 파괴 ⇨송영감 갈등 원인 : 다른기준
옥수	송영감 부인 석현 전 여친	박살나는 독에 심장 박살 석현과 갈등이 불안함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소설 독 짓는 늙은이

S1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송영감	환자 노인 솜씨에 틈 끝까지 독지음	아내와 조수 환영	내적갈등(환영) 독짓다 쓰러짐

S2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송영감	환자 노인 솜씨에 틈 끝까지 독지음 아이보고도 독 지음	아이 관찰. 걱정 하지만 독.	아이의 내면심리 추측
아이	순수. 어림.	엄마 기다림	남쪽 봄

S3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송영감	환자 노인 솜씨에 틈 끝까지 독지음 예술혼 독 지음	제 힘이 아닌 어떤 힘으로 일 어남	결국 쓰러짐

S4[A]

인물	성격	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송영감	환자 노인 솜씨에 틈 끝까지 독지음 예술혼 독 지음	이 상황에 분노	자기 걱정한 아이에게 화낼정도로 멘탈 터짐
아이	순수. 어림.	아빠 걱정	

S5
송영감은 포기 없이 계속해 독을 지음
건강, 실력, 모든 것에서 문제이지만, 끝까지 지음
=> 주제 : 포기를 모르는 예술 혼

이 구조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문제선지를 연결해보시면,

역시 평가원이 설계한 수능의 특징이 명확히 보이실거에요!

21. 〈보기〉의 관점에서 ⓐ,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장인(匠人)'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에서 '장인'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자의 모습과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모두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의 숙련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며 경지에 이른 장인은 자신이 제작하는 작품을 통해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 준다.

① '아냐! 이건 독이 아냐!'는 ⓐ의 원인이 되는 장인의 엄격한 미적 기준을 드러내며,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는 ⓑ를 향한 장인의 예술가적 집념을 보여 준다.

주제. 예술혼

② '흙덩이다!'는 장인의 가치 판단으로 ⓐ의 동기를 드러내고, '흙 떨덩이'는 ⓑ에서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소재를 지칭한다.

핵심 소재. 독. 흙덩이

③ '매섭게 보다가 휑하니 간다'는 ⓐ로 인해 벌어지는 장인과 주변 인물의 갈등을 보여 주고, '조수의 환영'은 ⓑ의 과정에서 장인의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을 드러낸다.

외적 갈등의 원인. 기준

④ '풀썩 주저앉고 만다'는 ⓐ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됨을,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는 ⓑ의 과정에서 부딪힌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 내용이 있지만. 주제가 아닙니다!

⑤ ⓐ의 행동 이후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하는' 것은 미적 가치 추구의 어려움을, ⓑ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는 것은 미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낸다.

주제. 예술혼

2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옥수'의 걱정이 '송 영감'보다는 독에 가 있음을 알려 준다.

인물의 내면 심리.

② ㉡:'왱손이'가 '송 영감'의 행동을 오만함에서 비롯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 준다.

인물간 갈등. 내면심리.

③ ㉢:'석현'이 독의 완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송 영감'의 기준과 다름을 보여 준다.

인물간 갈등. 원인

④ ㉣:'송 영감'이 독을 제대로 구워 내지 못하는 가마에 불만을 품고 있음을 드러낸다.

인물 내면심리.

⑤ ㉤:'애'가 언제나처럼 '왱손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이라 믿고 있음을 나타낸다.

인물 내면심리.

23. 〔A〕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주제를 잡아야합니다. 갈등해소 있지만, 주제는 아이의 간호에 화를 낼 정도로 멘탈이 터진 송영감

② 인물 간의 대화에 서술자가 개입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③ 새로운 인물이 다른 인물의 발화를 통해 등장함으로써, 인물 간의 대립 구도가 전환되고 있다.

④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정답!

⑤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공간적 거리와 결부하여 서술함으로써,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보여 주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나리오 「독 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였다. 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① (가)에서는 '백자기의 형체'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하다고 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행위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나가떨어지는'과 같은 사실적인 행위를 통해 갈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뚜왕 뚜왕 뚜왕'의 효과음을 이용하여 현장성을 강조하고 인물의 내면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⑤ (나)의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와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은 모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내면심리. 성격 아님. 정답!

우리는 수능 소설 문제 하면, 그냥 별 생각없이 읽거나, 적당히 **인물 잡으면서, 모든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세부 상세 내용을 분석적으로 보며, 특히 개념어, 전개방식 파악을 목적**으로 학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이 출제자들이 원하는,

목표하는 방법일까요?

무엇보다

현행 수능에 최적화된 접근법일까요?

평가원 출제교수님들께서 '극혐'하는 문학 사조가 있습니다.

바로 신비평 문학사조이고, 이것은 후에 구조주의로 이어지는데, 이 당시에 미국등으로 유학을 가신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 80~90s 우리나라 교육 전반, 특히,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신비평〉

1930~50s

〈구조주의〉

1950~70s

문제는, 신비평, 구조주의에 의한 문학 분석은,

철저하게 작품에'만' 근거하여,

외부 요소를 '배제'한 해석을 합니다.

즉, '내재론' 중심의 '지문에 근거한 해석'을 원합니다.

우리가 수능에 대해 전형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접근법.

바로...

"

지문에 모든 정답의 근거가 다 있다.

문학 작품, 있는 그대로 읽어라.

"

등의 해석법이죠.

이는, 1994~2013학년도, 초기 수능, 즉, 언어영역이던 시절, "수능은 지식이나 암기력 측정시험이 아니라, 능력 측정시험이다. 그래서 배경지식도 필요 없고,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정답의 근거가 지문에 있다. 따라서, 지문에 근거해서 풀어라." 등의, 지금의 출제 원칙에 어긋난 내용이 일부 스타강사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며, 이제는 통념이 되어, 그에 대한 명백한, 평가원, 국어교육학계의 논문, 공문서등을 근거로 잘못됨을 주장 해도 이상한 소리로 들리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과거 **'언어영역'**은 그런 경향 분명히 있고, 그래서 개념적으로나, 분석적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 답 고르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행 **'국어영역'** 수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예전 언어영역 접근법을 배워 고수하는 수험생**은 25분에 15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문학 파트에서 더 많은 시간을 쓰거나, 정답률 역시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평가원의 수능에 대한 생각을 바라보겠습니다.

“

〈소설〉

...소설은 ***현실의 삶***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소설 교육〉

...삶과 현실에 대한 심화된 체험...

...문학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 보다는 그것을 이용하여 작품을 올바로 이해하고 감상하여 그것을 내면화하는데 까지 나가야 한다...

...작품 속 삶이 자신의 생체험으로 전환되어 ***가치관을 변화시키며,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체험***을 하도록 돕는다...

”

〈최병우〉 『국어교육학 사전 428~43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개정수능 이후,

〈2017~ 확립된, 수능 국어의 특징〉

서사 장르,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

1. 주제 : 서사, 줄거리
2.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
3. 인물 = 성격 (+ 내면심리)
4. 특이한 소재, 배경, 전개방식(개념)

***첫부분 인물, 사건, 배경 세팅

*인물이 많으면 =〉 주인공 + 주인공 서사 집중

2017학년도 9월 모의고사 중 「독 짓는 늙은이」를 평소대로 풀어봅시다.

이제, 여러분이 평소 기출 분석하던 대로, 21번, 23번, 24번을 분석해봅시다. 질문드리겠습니다.

Q1. 21번. 만약 4번이 틀렸다면, 이유가 명백하고, 논리적으로 100% 확신하여 그 근거를 주장하실 수 있나요?

Q2. 23번. 4번 선지를 골랐다면, 왜 1번 선지는 틀려야 하나요? 1번 선지가 틀렸다는 100% 확실한 논리적 근거를 지문에서 찾으실 수 있나요?

Q3. 24번. 5번이 아닌 선지를 정답으로 골랐다면, 5번 선지는 정말로 맞는 선지인가요? 100%? 확실히?

다시 위의 질문 세 가지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 지문을 분석해봅시다.

23. 〔A〕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에 송 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흔들어 깨워서였다. 울먹이는 애가 깨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야 안심된 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웬 거냐고 하니까 애가,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해 오라더냐고 밥그릇을 밀쳐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송 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을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 한 술 입에 떠넣으며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좀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①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Q2. 23번. 4번 선지를 골랐다면, 왜 1번 선지는 틀려야 하나요? 1번 선지가 틀렸다는 100% 확실한 논리적 근거를 지문에서 찾으실 수 있나요?

보통, 우리는 개념을 적용해 문학 작품을 분석합니다.

우선 위의 세모 표현들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대사, 행동, 장면, 장면이 연쇄되고 있고,

①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가능합니다.

또한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해 오라더냐고 밥그릇을 밀쳐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즉, 아이와 아버지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①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1번 선지는 정답이 됩니다...???

그렇다면,

④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선지는요?

직접 제시 VS 간접 제시

직접 서술 VS 간접 서술

직접 인용 VS 간접 인용

이 차이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실전에서 순간적으로 흔들리지 않을까요?

시간안에, 정확히 푸는데 있어서...

개념을 비벼서, 근거 찾아 푸는 것이 정말 최선인가요?

아니, 시간이 충분하다 한들,

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개념을 적용해 분석해 보는 접근법이 과연 가능은 한가요?

정답 2개 아닌가요?

도. 대. 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전제,

수능 국어 시험에 대한 전제,

모든 정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다.

문학은 개념어 분석 문제이다

따위의 접근법이

틀렸기 때문이죠.

2014 개정수능 이후,

〈2017~ 확립된, 新수능국어의 특징〉

서사 장르,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

1. 주제 : 서사, 줄거리
2.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
3. 인물 = 성격 (+ 내면심리)
4. 특이한 소재, 배경, 전개방식(개념)

***첫부분 인물, 사건, 배경 세팅

*인물이 많으면 => 주인공 + 주인공 서사 집중

위의 접근 틀에 따라 분석해보겠습니다.

(가)

 # 124. 뜸막 안

자리에 누운 송 영감 나직히 신음한다. 처가 와서 약그릇을 놓는다.

성격 : 환자 성격 : 영감 보살핌

인물에 파란색 동그라미,

평가원이 집중하는 정보에 밑줄을 칩니다.

인물 = 사람 이름

성격 = 인물의 전형을 결정하는 요소(신분, 직업, 나이 등등)

'성격'은 원래 CHARACTER를 번역한 말로, '인물'과 같은 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능 국어 기출 문제 접근에서는 위와 같이 정보 처리합니다.

옥 수 : 약 잡수셔야죠.....

송 영감 : (눈을 뜨며) 음?!

옥수 일어나려는 송 영감을 부축하며 약그릇을 대 준다. 약을 마시는 송 영감.

송 영감 : (걱정스럽게) 가만 어떻게 됐지?

옥 수 : ㉠ 저녁때 독을 끌어내야죠……

송 영감의 내면심리

송 영감 : 음!

그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백자기에 가 있다.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한 백자기의 형체. -DIS*-

소재

 # 125. 가마 앞(황혼)

마당에 놓인 중옹, 통옹, 반옹 등 갖가지 독들. 그런데 그 형태가 모두 고르지 않다. 비틀어진 독, 밑이 내려앉은 독, 거미줄처럼 금이 간 독들.

송영감 (걱정스럽게) = 내면심리

건강이 안 좋음에도, 독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아내인 옥수는 송 영감을 간호하는 것이 우선이고,

영감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소재인 '독'에 주목을 시킵니다.

내면심리

왱손이, 석현이 걱정스럽게 본다. 그러자 송 영감이 비실거리며 달려온다. 독을 하나하나 살핀다.

송 영감 : (혼잣말처럼) 이럴 수가.....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게 내가 만든 독이야! (절망) 아냐! 이건 독이 아냐! (계속 보며) 이것두! 이것두..... (비통하게) 이건 흙덩이다!

송 영감의 내면심리

가마 앞에 달려가 망치를 든다.

왱손이 : ㉡아니 여보게! 무슨 짓인가!갈등? ㄴㄴ 만류

송 영감 : 비켯! (뿌리친다)

주변 인물들이 걱정스럽게 볼 정도로, 독은 엉망진창입니다. 송영감은 절망하고, 비통합니다.

독을 깨려는 그를 왱손이가 말립니다. 지엽적으로 보면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뒷 내용을 보면, 왱손이는 송 영감을 공감하고 있고, 따라서, 이는 갈등이 아니라, 송 영감의 노력과 고생을 알기에, 송 영감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만류하려는 것으로 해석 해야 합니다.

나가떨어지는 왱손이

갈등 원인 : 기준 차이

석 현: ㉤(잡으며) 안됩니다! 성한 것두 있어요!

송 영감: 닥쳣! 이건 부정을 탔어! 모두 쳐부셔야 햇!

밀어붙이며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 ⓐ독을 박살 내기 시작한다.

하지만 석현이와의 갈등은 조금 다릅니다. 기준 차이 때문에 생긴 갈등이고, 뒤의 내용을 보면, 석현이와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암시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뚜왕! 뚜왕!

옥수의 내면심리 묘사

박살 나는 독들.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옥수.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출제자가 어떤 정보를 중요하게,

그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출제자 관점에서는

옥수의 내면심리 묘사

입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나리오 「독 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였다. 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① (가)에서는 '백자기의 형체'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하다고 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행위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나가떨어지는'과 같은 사실적인 행위를 통해 갈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뚜왕 뚜왕 뚜왕'의 효과음을 이용하여 현장성을 강조하고 인물의 내면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⑤ (나)의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와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은 모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옥수의 내면심리 묘사

즉, 옥수의 내면심리 묘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가원의 단호한 의지가 보입니다.

~~지문에 모든 정답의 근거가 다 있다?~~

~~문학 작품, 있는 그대로 읽어라?~~

~~개념어 학습이 중요하다?~~

~~개념어 정리 후 그것을 작품에 적용 해석하라?~~

~~선지 ox 판단?~~

저도 불과 3년전 까지의 수능에서는 위와 같은 접근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수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신비평에 의한 작품 분석 접근법을 배제한다"

즉, 개념어 중심의 문제 접근을 막겠다는 의지.

개념어 중심으로 접근할 때의 함정이 보입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나리오 「독 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였다. 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④ (나)의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⑤ (나)의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와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은 모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보이시나요? 평가원에게는 개념어 : 시각적 묘사

가 전혀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2014 개정수능 이후,

〈2017~ 확립된, 新수능국어의 특징〉

서사 장르,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

1. 주제 : 서사, 줄거리

2.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

3. 인물 = 성격 **(+ 내면심리)**

4. 특이한 소재, 배경, 전개방식(개념)

***첫부분 인물, 사건, 배경 세팅

*인물이 많으면 => 주인공 + 주인공 서사 집중

즉, 정보처리 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옥수의 내면심리 묘사

임을 파악할 수 있었느냐의 문제이죠.

이렇게, 우리가 평가원의 규격에 맞게 정보처리 하지 않으면 생기는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왱손이 : (비통 혼잣말같이) 자네 환장했구먼!

석현이 매섭게 보다가 휑하니 간다. 옥수 몹시 불안하게 그를 바라본다.

왱손이와의 갈등은, 사실, 송영감에 대한 걱정과 공감임을

석현이와의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음을

그리고 으잉? 옥수는 갑자기?? 왜???

사실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원문을 찾아봤고...

나중에 썰 풀게요...

Ⓔ 뚜왕! 뚜왕!

송 영감 그만 숨이 턱에 닿는다. 풀썩 주저앉고 만다. 목구멍에서 차츰 오열이 새어 나온다.

Ⓔ 뚜왕! 뚜왕! 뚜왕!

옥수 귀엔 언제까지나 확대되어 가는 박살 나는 독 소리. 송 영감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해 운다. 석양에 물든 하늘.

-DIS-

-황순원 원작, 여수중 각색, 「독 짓는 늙은이」-

*DIS: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위로 다음 화면이 나타남.

*Ⓔ: 효과음.

네 작품은 이렇게 끝났고.

나중에 썰 풀게요...

첫부분 인.사.배 잡기!

(나)

송영감의 능력한계

차차 송 영감의 솜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바치*로 두드려 올릴 때, 퍼뜩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 하는 새, 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 잘 잡히지를 않았다. 열 때문도 있었다. 송 영감은 ㉣쓰러지듯이 짓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내적 갈등

어려운 상황 장면

솜씨에 틈이 생겼다 = 능력의 한계라고 해석 가능하고

환영 = 내적 갈등, 심적 괴로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네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 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녁때가 기울어서였다. 왱손이도 흙 떨 덩이를 이겨 놓고 가고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바깥 저녁 그늘 속에 애가 ㉤남쪽 장길을 향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 언제나처럼 장 보러 간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때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워 가지고 돌아올 줄로만 아직 아는가 보다.

아이의 내면심리 추측

다시 일어나 보니, 아이가 힘들어 보이고, 그 아이아 내면 심리를 송 영감 입장에서 추측하는데...

이상하네요?

아이가 저렇게 있으면 정상적인 아버지면 어떻게 해야하죠?

아이를 챙겨야죠.

그런데 뭐하나요?? 또 독만 짓고 있네요?

밖을 내다보던 송 영감은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독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겨우 한 개를 짓고는 다시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다.

내면심리 어려운 상황

송영감의
내면심리
내적갈등

[A] 다음에 송 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흔들어 깨워서였다. 울먹이는 애가 깨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야 안심된 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웬 것냐고 하니까 애가 행두나뭇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해 오라더냐고 밥그릇을 밀쳐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송 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을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 한 술 입에 떠넣으며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좀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자 이제 문제의 부분입니다. 추후 문제 풀이 하며 설명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송 영감이 죽인지 밥인지 모를 것을 끓였다. 여전히 입맛은 없었으나 어제 저녁처럼 목이 메어 오르는 것은 없었다.

오늘은 또 지어 올리는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 밖에 피워 놓았다가 독이 한 반쯤 지어지면 독 안에 매달아 놓은 숯불의 숯내까지가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

송 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흙이기던 왱손이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 가마 채우지 못하리라고 송 영감에게 내년에 마저 지어 첫 가마에 넣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몇 번이고 권해 보았으나 송 영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도 독 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았다.

의지. 열정
예술가로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조마구와 부채마치:옹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한 쌍의 도구.

*전:옹기 등 물건의 위쪽 가장자리가 조금 넓적하게 된 부분.

끝까지 읽어보니 어떤가요?

송영감은 늙고, 노쇠하고, 심지어 실력도 떨어지고...

심지어 아이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독을 짓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걱정해 챙겨주는 아이한테 화를 내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을 다시 짓습니다.

즉,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독을 짓습니다. 즉, 좌절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의 혼, 극복의지라고 주제를 읽을 수 있죠?

그렇다면 아래의 정답은?

23. [A]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④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❶ 아이와의 갈등을 보여주고 싶어 작가가 쓴 부분인가요?

❹ 자기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아이한테 화를 낼 정도로 멘탈이 터져버릴 때까지 예술 혼을 불태우는 송영감의 내면심리를 묘사하기 위함인가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선지가 됩니다.

즉, 우리는 1,2,3,4선지 하나 하나 보며, 나름의 판단을 했을 거에요. 하지만, 제발, 우리가 평가원의 정보 처리 규격에 따라 정보 처리를 했다면, 지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규격에 맞지 않게 처리 했으니,

당연히 판단이 안 되고,

그러니 자꾸 지문으로 가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출제 의도, 출제자가 처리한 규격에 맞지 않는 정보 처리를 했고,

결국 선지 판단에 개념을 적용하고,

논리를 따지다 틀린 선지를 고르는 불상사,

답을 고르지 못하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옥수'의 걱정이 '송 영감'보다는 독에 가 있음을 알려 준다.

아까 봤다시피, 옥수는 송영감 걱정을 하기 때문에, 송 영감을 먼저 보살피죠. 성격

② ㉡:'왱손이'가 '송 영감'의 행동을 오해함에서 비롯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 준다.

왱손이는 공감(내면심리)했습니다!

③ ㉢:'석현'이 독의 완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송 영감'의 기준과 다름을 보여 준다.

정확한 갈등의 원인 보이네요.

④ ㉣:'송 영감'이 독을 제대로 구워 내지 못하는 가마에 분만을 품고 있음을 드러낸다.

역시 내면심리, 내적갈등

⑤ ㉤:'애'가 언제나처럼 '왱손이 ~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이라 믿고 있음을 나타낸다.

역시 내면심리

위와 같이 평가원이 원하는 대로 정보처리를 정확히 했다면 답을 고르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21. <보기>의 관점에서 ⓐ,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장인(匠人)'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에서 '장인'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자의 모습과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모두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의 숙련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며 경지에 이른 장인은 자신이 제작하는 작품을 통해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 준다.

작품 줄거리와 주로 (가)에서 보여진 외적갈등, (나)에서 보여진 내적갈등, 그리고 (가)에서 보여진 절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서 보여진 영감의 성격을 정리해 생각하면, 주제는...

절망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술가적 집념으로 극복하려는 송영감의 의지

위와 같이 평가원이 원하는 대로 정보처리를 정확히 했다면 답을 고르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① '아냐! 이건 독이 아냐!'는 ⓐ의 원인이 되는 장인의 엄격한 미적 기준을 드러내며,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는 ⓑ를 향한 장인의 예술가적 집념을 보여 준다.

주제 잡았으면 무리 없습니다.

② '흙덩이다!'는 장인의 가치 판단으로 ⓐ의 동기를 드러내고, '흙 몇 덩이'는 ⓑ에서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소재를 지칭한다.

소재와 내면심리를 잡았으면 역시 좋음.

③ '매섭게 보다가 휑하니 간다'는 ⓐ로 인해 벌어지는 장인과 주변 인물의 갈등을 보여 주고, '조수의 환영'은 ⓑ의 과정에서 장인의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을 드러낸다.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잡으면 됩니다.

④ '풀썩 주저앉고 만다'는 ⓐ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됨을,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는 ⓑ의 과정에서 부딪힌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가) 내면심리 : 절망

(나) 첫부분 : 능력 한계

있는 것 같네요!

⑤ ⓐ의 행동 이후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하는' 것은 미적 가치 추구의 어려움을, ⓑ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는 것은 미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낸다.

맞습니다...

?

??

???

정답이 없네요???

뭐가 문제죠?

여러분...

제발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논리로

사후적으로 정답을 알고 끼워 맞추기로 답 골라놓고,

그게 맞다고 착각하면,

수능날 참교육 당합니다...

풀이 과정이 틀렸는데 우연하게 답만 맞으면 뭐할거에요.

왜 정답이 4번 선지가 되어야 하나요?

여러분의 평소 풀이, 시중 해설지, 접근으로는 절대 100% 완벽한 답변 못 합니다.

하지만, 평가원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너희가 주제를 제대로 파악했느냐.

절망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술가적 집념으로 극복하려는 송영감의 의지

④ '풀썩 주저앉고 만다'는 ⓐ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됨을,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는 ⓑ의 과정에서 부딪힌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즉, 위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감은 극복의지를 보였다!'

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즉, 주제에 위배되죠?

좌절까지만, 능력의 한계 까지만 이야기 하면...

출제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절반,

혹은 오히려 반대 의미가 전달됩니다.

좌절과 능력의 한계는

극복의지를 빛나게 하려고 출제자가 세팅한 부분이지,

작품의 주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것이 바로 출제자가 생각한 답.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풀던대로,

개념 따지고,

내용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단어, 내용, 장면, 하나 하나, 개념과 연결지어 숨은 그림찾기,

퍼즐 맞추기로 선지 끼워맞춰서 접근...

더 이상 안 됩니다.

평가원이 원하는 정보처리 규격

반복하고

이해하고

암기해

적용합니다.

2014 개정수능 이후,

〈2017~ 확립된, 新수능국어의 특징〉

서사 장르,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

1. 주제 : 서사, 줄거리
2.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
3. 인물 = 성격 (+ 내면심리)
4. 특이한 소재, 배경, 전개방식(개념)

***첫부분 인물, 사건, 배경 세팅

*인물이 많으면 => 주인공 + 주인공 서사 집중

여담으로...

(가)

석현이 매섭게 보다가 휑하니 간다. 옥수 몹시 불안하게 그를 바라본다.

왱손이와의 갈등은, 사실, 송영감에 대한 걱정과 공감임을

석현이와의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음을

그리고 으잉? 옥수는 갑자기?? 왜???

사실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데...

(나)

차차 송 영감의 솜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마치*로 두드려 올릴 때, 퍼뜩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 하는 새, 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 잘 잡히지를 않았다. 열 때문도 있었다. 송 영감은 ㉡쓰러지듯이 짓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헉... 설마 바람 나서 나갔나???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원문을 찾아봤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원문을 찾아봤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원문을 찾아봤고...

불길속에 사랑과 집념을 ... 구어내는 욕정의 충격예술???

욕정???

[명사] 1. 한순간의 충동으로 일어나는 욕심. 2. 이성에 대한 육체적 욕망.

할많하않... 유투브에서 뵈어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결과는 제외되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사용자는 성인인증을 통해 모든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성인인증

햐... 뭐지?

19금????

추후 이 부분은 유투브에서 썰을 풀어드릴께요.

구글 검색해봐도...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124. 뜸막 안

자리에 누운 송 영감. 나직히 신음한다. 처가 와서 약그릇을 놓는다.

성격 : 환자 성격 : 영감 보살핌

옥　수 : 약 잡수셔야죠……

송 영감 : (눈을 뜨며) 음?!

옥수 일어나려는 송 영감을 부축하며 약그릇을 대 준다. 약을 마시는 송 영감.

송 영감의 내면심리

송 영감 : (걱정스럽게) 가만 어떻게 됐지?

옥　수 : ㉠저녁때 독을 끌어내야죠……

송 영감 : 음!

그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백자기에 가 있다.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한 백자기의 형체. -DIS*-

소재

 # 125. 가마 앞(황혼)

마당에 놓인 중옹, 통옹, 반옹 등 갖가지 독들. 그런데 그 형태가 모두 고르지 않다. 비틀어진 독, 밑이 내려앉은 독, 거미줄처럼 금이 간 독들.

내면심리

왱손이, 석현이 걱정스럽게 본다. 그러자 송 영감이 비실거리며 달려온다. 독을 하나하나 살핀다.

송 영감 : (혼잣말처럼) 이럴 수가……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게 내가 만든 독이야! (절망) 아냐! 이건 독이 아냐! (계속 보며) 이것두! 이것두…… (비통하게) 이건 흙덩이다!

송 영감의 내면심리

가마 앞에 달려가 망치를 든다.

갈등 **왱손이** : ㉡아니 여보게! 무슨 짓인가! 만류

송 영감 : 비켯! (뿌리친다)

나가떨어지는 왱손이

갈등 원인 : 기준 차이

갈등 **석　현** : ㉢(잡으며) 안됩니다! 성한 것두 있어요!

갈등 **송 영감** : 닥쳣! 이건 부정을 탔어! 모두 쳐부셔야 햇!

밀어붙이며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 ⓐ독을 박살 내기 시작한다.

Ⓔ* 뚜왕! 뚜왕!

옥수의 내면심리 묘사

박살 나는 독들.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옥수.

공감 **왱손이** : (비통 혼잣말같이) 자네 환장했구먼!

석현이 매섭게 보다가 휑하니 간다. 옥수 몹시 불안하게 그를 바라본다.

Ⓔ 뚜왕! 뚜왕!

송 영감 그만 숨이 턱에 닿는다. 풀썩 주저앉고 만다. 목구멍에서 차츰 오열이 새어 나온다.

Ⓔ 뚜왕! 뚜왕! 뚜왕!

옥수 귀엔 언제까지나 확대되어 가는 박살 나는 독 소리. 송 영감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해 운다. 석양에 물든 하늘.

-DIS-

-황순원 원작, 여수중 각색, 「독 짓는 늙은이」-

*DIS: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위로 다음 화면이 나타남.

*Ⓔ: 효과음.

첫부분 인.사.배 잡기!

(나)

능력한계

차차 송 영감의 솜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마치*로 두드려 올릴 때, 퍼뜩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 하는 새, 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 잘 잡히지를 않았다. 열 때문도 있었다. 송 영감은 ㉣쓰러지듯이 짓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내적 갈등

어려운 상황

송 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녁때가 기울어서였다. 왱손이도 흙 몇 덩이를 이겨 놓고 가고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바깥 저녁 그늘 속에 애가 ㉤남쪽 장길을 향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 언제나처럼 장 보러 간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때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워 가지고 돌아올 줄로만 아직 아는가 보다.

아이의 내면심리 추측

밖을 내다보던 송 영감은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독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겨우 한 개를 짓고는 다시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다.

내면심리 어려운 상황

[A] 다음에 송 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흔들어 깨워서였다. 울먹이던 애가 깨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야 안심된 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웬 거냐고 하니까 애가,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해 오라더냐고 밥그릇을 밀쳐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송 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을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 한 술 입에 떠넣으며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좀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송영감의 내면심리 내적갈등

다음날 아침에는 송 영감이 죽인지 밥인지 모를 것을 끓였다. 여전히 입맛은 없었으나 어제 저녁처럼 목이 메어 오르는 것은 없었다.

오늘은 또 지어 올리는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 밖에 피워 놓았다가 독이 한 반쯤 지어지면 독 안에 매달아 놓은 숯불의 숯내까지가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

송 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흙이기던 왱손이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 가마 채우지 못하리라고 송 영감에게 내년에 마저 지어 첫 가마에 넣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몇 번이고 권해 보았으나 송 영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도 독 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았다. 의지. 열정 예술가로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조마구와 부채마치:옹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한 쌍의 도구.

*전:옹기 등 물건의 위쪽 가장자리가 조금 넓적하게 된 부분.

21. <보기>의 관점에서 ⓐ,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장인(匠人)'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에서 '장인'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자의 모습과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모두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의 숙련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며 경지에 이른 장인은 자신이 제작하는 작품을 통해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 준다.

① '아냐! 이건 독이 아냐!'는 ⓐ의 원인이 되는 장인의 엄격한 미적 기준을 드러내며,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는 ⓑ를 향한 장인의 예술가적 집념을 보여 준다.

② '흙덩이다!'는 장인의 가치 판단으로 ⓐ의 동기를 드러내고, '흙 몇 덩이'는 ⓑ에서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소재를 지칭한다.

③ '매섭게 보다가 휑하니 간다'는 ⓐ로 인해 벌어지는 장인과 주변 인물의 갈등을 보여 주고, '조수의 환영'은 ⓑ의 과정에서 장인의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을 드러낸다.

④ '풀썩 주저앉고 만다'는 ⓐ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됨을,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는 ⓑ의 과정에서 부딪힌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주제 : 건강악화. 능력한계에도 불구. 극복의지

⑤ ⓐ의 행동 이후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하는' 것은 미적 가치 추구의 어려움을, ⓑ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는 것은 미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낸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옥수'의 걱정이 '송 영감'[illegible]는 독에 가 있음을 알려 준다. 옥수. 성격 내면심리

② ㉡:'왱손이'가 '송 영감'의 행동을 오[illegible]학에서 비롯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 준다. 공감

③ ㉢:'석현'이 독의 완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송 영감'의 기준과 다름을 보여 준다. 갈등 원인

④ ㉣:'송 영감'이 독을 제대로 구워 내지 못하는 가마에 불만을 품고 있음을 드러낸다.

⑤ ㉤:'애'가 언제나처럼 '왱손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이라 믿고 있음을 나타낸다.

23. 〔A〕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② 인물 간의 대화에 서술자가 개입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③ 새로운 인물이 다른 인물의 발화를 통해 등장함으로써, 인물 간의 대립 구도가 전환되고 있다.

④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의도) : 내면심리. 내적갈등

⑤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공간적 거리와 결부하여 서술함으로써,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보여 주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나리오 「독 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였다. 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① (가)에서는 '백자기의 형체'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하다고 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행위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나가떨어지는'과 같은 사실적인 행위를 통해 갈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뚜왕 뚜왕 뚜왕'의 효과음을 이용하여 현장성을 강조하고 인물의 내면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⑤ (나)의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와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은 모두 시각적 묘사를 통해 [illegible]을 드러내고 있다.

내면심리 묘사